朝鮮日報 夕刊

社說

金融組合과 庶民
眞實한庶民金融機關이되게하라

一

金融組合은 그 本來의 目的이 庶民 特히 農民에게 資金을 融通하야 農村經濟를 潤澤케함에 잇섯다。아닌게아니라 金融組合은 組合加入金으로서 一口에村落十圓、都市二十圓을 밧되이것도 十回에 分하야 納入하고、百圓、二百圓의 小額도貸付하며 그分布狀態로 보드래도 昭和六年 九月末現在에 村落組合 五百八十三、都市組合 六十二、計六百四十四로 平均三面에 一組合이 잇슴으로 庶民金融機關으로서의 使命을 다하는것갓다。그러나 表面 庶民金融機關가티 보이는 金融組合은 그實際에 잇서서 庶民金融機關이되어 잇는것보다 中産階級以上의機關이 되어잇는 感이 不無하다。

二

첫재 組合加入者의 階級으로부터 보자。詳細한 資料는 어들수가 업스나 最近 京畿道內의 組合加入者를 보면 農村보다 都市에 比較的 加入者가 만코 가튼 農村에서도 細民보다 中産階級以上의 人이만타。即同道組合員의 戶稅賦課額은 農村組合員에는、五百圓以上이 二七、四%、三百圓以上 四六、七% 百圓以上 三八、二%、百圓以下 二七、四%로 되여잇고、都市組合員은 萬圓以上二九、六% 五千圓以上 二六、四%、五萬圓以上 一八、四% 四百圓以上 一一、%로 되어잇다。

이것으로써 金融組合이 얼마나 庶民들과 關係가 먼것을알수잇슬것이다。

둘재 貸出方式을 보자。金融組合은 그貸出에 잇서서 資産階級에는 信用貸付가 잇스나不然하면 抵當權을 設定한다。抵當權이업는 細民이 借金할수업는것은 勿論이어니와 設使借金을한다 하드래도 諸般費用과先滲을 除하면 그쓸것이 얼마업다。이것이 무슨 庶民金融機關이냐。

三

셋재는 組合員外의 預金을認定하는것이다。金融組合은 殖銀間의 借金이 잇는外에 一般人의 預金을 取扱한다。그리하야 餘裕잇는 資産階級의 預金을바티가지고 資力의 關한 組合員에게 貸付하야 그利潤을 取하는 形便이니 이리하야 富者는 貧者를 都會는 農村을 吸取하는 觀을 呈하야잇다。

넷재는 組合加入口數에 制限이 적은것이다。大槪 一人이五十口까지 가질수 잇게되엇고、利潤은 加入口數에 比하야配當되니 結局 株式會社에 잇서서 大資本가진이가 利潤을 獨占함과무엇이 다르냐。

四

이밧게 組合職制에 關한것이니 組合의 役員은 組合員이選任하고 罷免할 權利를 가저야 한다。그런데 聯合會와 理事長理事로부터 組合의 理事에 이르기까지 그任命及 罷免은 朝鮮總督의 權限에 屬하야잇다。그러므로 組合은 協同扶助의 精神이 업고、官僚的 支配精神만이 充滿하다、이것이 庶民과 關係가 먼所以이다。

五

要컨대 金融組合은 本來의 目的이 庶民의 生産資金融通에 잇스면서 그實은 組合資金의 增殖에만 專力하는 感이 잇스니 그 貸出額이 一億二千餘萬圓이란 巨額을 가진것으로보아 朝鮮銀行 殖産銀行에 버금가는 金融機關이다。當局이 金融組合으로하야금 普通金融機關과 가티 營利를 目的하고 利潤의 增殖만을 主眼으로 삼는다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庶民 特히 農民에게 金融의 圓滑을 꾀한다면 利子를 더싸게하고、信用貸付制度를 넓히며 組合員의 細民加入의 途를 擴張하며、富裕한 組合員과 組合員外의 資産家의 利潤搾出을 防止하며、監督官廳의 干涉을緩和케하는 同時에 組合員들로하야금 相互扶助의 機關이되게할것이다。

라발佛國外相 獨空相과重要會談
波蘭首都에서會談二時間餘
近日中伯林再訪問

【電通크라우(波蘭)十八日發】라발佛外相은 피링航空相과十八日波蘭外相벡氏가故필수드스키元帥의 遺骸埋葬式에參列한外國使節을招待한 午餐會席上에서 또同日夕刻에 場所를 變改하야二時半의긴時間에 亘하야密談을 遂하엿다 會談後라발外相은자못氣分조흔얼골로 新聞記者團에對하야 今日은 피링航空相과 獨佛兩國에 關한 모든問題에 對하야 非常。興味잇는會談을行하엿는데 直接會談은 兩國民間에 誤解를 避하기 爲하야 最善의 方法이라고하는것과 나의主張이다 라고말하엿는데 會談의 內容은 勿論 傳하는바와가티 伯林訪問을 中止할는지 그與否에對해서는 觸하는것을 避하엿다 그리고 피링氏는 特別列車로 왈소우에 向하엿는데 라발氏는 伯林經由歸國의 途에올랏다 그러나 元帥의 葬儀를 機會로 行한 佛獨兩巨頭의 會談에依하야 佛國外相의 伯林訪問은 急速히 實現하게될 模樣으로 그結果는 歐洲政局에 新局面을 展開할것이라고보이어 推移는 注目된다

【크라카우十八日發聯合】크라카우의 故필수드스키元帥의 埋葬式에 參列後 獨逸航空相 피링氏、佛外相 라발氏及波蘭外相벡氏는 午餐을 가티하면서 라발外相의 訪獨問題에關하야 協議를 行한 結果 라발外相은 數日中에 伯林을 訪問하고 히틀러總統과 會見을 하기로 決定을 보앗다는模樣이다

【電通伯林十八日發】피링航空相과 密接한關係에잇는 信用할만한側에서는 피링氏가波蘭의 크라카우에서 라발佛外相과 會談한것은 同外相의 訪獨의時期를 早速케한것이라고 보고잇다 (寫眞은라발佛外相과피링獨空相)

故필元帥埋葬式 크宮에서壯嚴히執行

【電通크라카우(波蘭)十八日發】波蘭再興의 元勳인 故필수드스키元帥의 遺骸埋葬式은 波蘭歷代의 帝王及 歷史的英雄의 陵廟인 크리스트와월寺院에서 百一發의 吊砲發射裡에 行하야 遺骸는 土耳其戰爭의 勇將이라고 稱하는 요한소비에스키將軍의 墓側에 나란이하야 埋葬을 終하엿다 此時 全波蘭의 國民은 三分間 默禱를 올리엿다

滿洲國保險統制 日滿間意見一致

【新京十八日發聯合】關東軍發表 滿洲國에잇서서의 保險事業의 統制에對해서는 從來 여러가지 調査考究를 거듭하고잇던바 今回 日本으로부터 各代表者가 新京에 來하야 各各 會議를 開催하고 意見交換을 行하얏는데

一、生命保險에 對해서는 日本生命保險會社協會代表 矢野恒太外八名이 新京에와서 五月十五、六의 兩日에亘하여 保險及 一般의諸問題 特히 日滿合辦生命保險會社設立에對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그結果 滿洲의 特殊事情을諒解하야 此等方針에 充分協力하기로 意見이一致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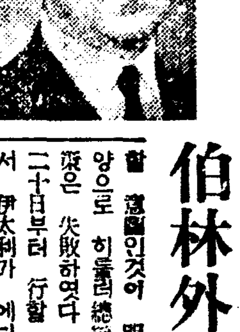
二、損害保險에잇서서는 日本火災保險會社協會代表 南部爾其他의 代表者와 意見交換을한結果 大略意見이 一致되엇스므로 滿洲國에서 硏究하야 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엇다

日코條約期限滿了 半年間暫定的措置

【電通東京電話】콜롬비아政府는 昨年十月三十日附로써 日콜相互通商條約의 期限滿了를 通告하야 去四月三十日로써 失效케되엇스므로 廣田外相은 磐手在콜롬비아公使에게 訓電을發하야 콜롬비아政府와의사이에 善後處置를 協議시키고잇섯던바 十八日同公使로부터 外務省에達한 公電에依하면 콜롬비아外相은 五月十五日附公文으로써 來十月三十一日까지 六個月間의 暫定的措置로同國에 輸入되는 日本品에 對한取扱을 如左히 決定하엿다는旨를通告해왓다

一、右六個月間의 期間은 日本領土及 所屬地域에 輸入되는 콜롬비아 國産物에 對하야 日本이 現行關稅率을 維持하는 限 日本品에對해서는 現在課하고잇는것과 同樣의 關稅로 콜롬비아國領土에 輸入을繼續함을得함

히總統伊國懷柔策 무氏一蹴으로失敗
伯林外交界에大衝動



【伯林十八日發聯合】히틀러總統은 第二次爆彈宣言에압서 恒久的獨逸孤立의 現狀打開와 英佛伊의 共同戰線打破를 企圖하야 伊太利說破를 策한것이 十八日에 至하야 判明되어 伯林外交界에 異常한 衝動을 喚起하얏다 即十八日 獨逸官邊이 漏洩한바에 依하면 히틀러總統은 伊太利政府와의 接近에 依하야 英、佛、伊對獨共同戰線을 打破하려는 方策에依하야 秘密히 羅馬駐剳大使 하셀氏를 뭇솔리니首相에게 派遣하야 獨伊携提를 策하는同時에 他方괴벨스 宣傳相에對하야 뭇솔리니首相及 伊太利當路者에 對한論難을 中止하도록 命하엿다고한다 그런데 十七日 하셀氏로부터온 報告에 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依然히 英佛을 支持하고 對獨共同動作에出할 意圖인것이 明瞭하게된 모양으로 히틀러總統의 伊國抱懷策은 失敗하엿다 히틀러總統은 二十日부터 行할 聯盟理事會에서 伊太利가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英佛과 對立하는 窮地에 陷할것을 豫想한다음 伊太利懷柔에 出한것으로 伊國側은 講和問題와 歐洲問題는 全然別個의 問題로 斷乎 히틀러總統의 態度를 拒否한것으로 想察된다 (寫眞은 히總統)

이든國璽尙書 伊『에』調停에出馬
英政府廣汎權限賦與

【倫敦十八日發聯合】이든國璽尙書는 二十日부터 開催되는 國際聯盟理事會에 出席하기爲하야 十八日 倫敦을 出發하야 壽府에赴하기로되엇다 今回의 理事會에서는 特히 에디오피아國境問題가 上程될터인데 英國政府로서는 極力 歐洲平和確保를 爲하야 積極的으로 居中調停의 勞를 取할 方針인데 이때문에 이든國璽尙書에게 相當히 廣汎한裁量의權限을與한것으로보인다

外人調停員에 伊國頑强히反對

【電通羅馬十八日發】伊太利、에디오피아紛爭解決을爲하야 設置된 調停委員會에 에디오피아側이 自國國民이아닌 國際通二名을 雇入하야 이것을 에디오피아側委員으로 任命한것을 承認하지안코 끗까지 에디오피아人의中에서 委員을 選任시키기로 決定하고 外務省代表者는 十八日如左히告示하엿다 에디오피아國이 外人을雇用하야 調停委員에 假裝시킨것은 에디오피아國이 如何히 野蠻國인가의 證據이다 百萬人의 住民中에서 단二人의 調停者選任까지도 困難하다

日滿經濟基本協定 廿二日正式調印

【電通新京十八日發】日滿經濟와 運輸連絡에 關한 基本協定案은 日本側은樞密院、滿洲國側은 參議府의 御諮詢을 經하엿슴으로 廿二日 新京에서 南大使와 謝外交部大臣과의 사이에 正式調印을 行하기로되엇다

伊太利遠征費 一億八千萬圓

【電通羅馬十八日發】十八日下院의豫算審議에 際하야政府側에서는過般東阿弗利加遠征軍派遣에要한經費는 四月末日까지에 六億二千미라(日貨約一億八千萬圓)의巨額에達한 右旨를發表하엿다

人事·集會

▲恥堂白彝行氏 (元五山學校設立者) 五月十七日午後十時、平北定州郡南面鳧湖自宅에서 九十一歲의高齡으로別世

▲康德臣氏(開豊郡北面公醫)新任人事次來社

駐中公使昇格을 英皇帝御裁可

【倫敦十七日發聯合】英帝조지五世陛下께서는 十七日 駐中公使館昇格件에 關한外相사이먼氏의上奏를御嘉納하시고 隨後北平駐剳特命全權公使를 特命全權大使로昇格하는데 御裁可하시엿다

八面鋒

◇五名의操縱으로 六十노트의快速力을가진 小型潛艇四百五十隻을 獨逸이建造。

◇烏賊의먹통、집게이의惡臭를動物의防禦本能이라하면、二十世紀의人間도 動物化競走를 하는모양。

◇京城府議立候補者 입마다 『敎育改善』『衛生改善』『下水道改善』等等如出一口로善喃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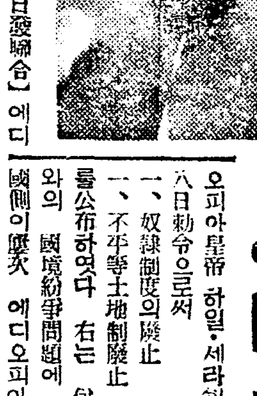
◇府議之將立에『其言也善』이라하여볼가。

◇退物이모혀도 新黨、老物이모혀도新黨、老退物들의政黨이니 이름이라도새롭자는努力?

◇헌부대에 새술을담지못한다함은예수그리스도의 말슴이든가。

今日本紙四面

傳統을抛棄하고 斷然大改革斷行
에國皇帝勅令公布



【아디스아베바八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세라시에一世는十八日勅令으로써

一、奴隸制度의廢止

一、不平等土地制度의廢止

를公布하엿다 右는 伊太利政府와의 國境紛爭問題에 關하야 伊國側이 屢次 에디오피아國民을野蠻이라고 固執하는것이만코最近에는 內政干涉에까지 言及하는 現狀에 鑑하야 一世陛下는 모든傳統을 抛棄하야 斷然大改革을 斷行하게된것이라고 보인다

(寫眞은 히總統 에國皇帝)

新疆省政權을 蘇聯、完全히把握
赤化工作着着進行

【奉天】當地某機關에 到達한情報에依하면 現在新疆省의 政治的全機構는 總히蘇聯의掌中에잇서서 赤化工作이 着着進行되고잇다한다

即 昨春新疆督辦盛世才가 馬仲英軍과 對峙되엇슬때 盛督辦은 蘇聯側에 援助를 어더馬仲英을驅逐하엿다는바 그恩惠로 赤軍의入新을容認하야 全面的으로其指導赤化에 甘受하고잇다하며 現在新疆政治의 最高組織은 表面軍民分治를 標榜하고 行政機關인 省政府와 軍事機關인 邊防督辦公署와는 各各最高機關으로서 併置되여잇는 政軍의 大權은 蘇聯의 傀儡에不過한 盛世才가 主管하고 省主席은 督辦에게 任命되여 잇다고 한다 督辦公署에는 蘇聯의 最高軍事顧問三名外士官學校、航空學校 憲兵學校等의 各直轄機關의 敎官은 全部赤軍의 敎官及顧問에依하야 共産主義的訓練指導를밧고잇다한다

또는新疆政治監察管理局이라고 稱하는特別組織機關은 新疆赤化의策源地로 全省의生殺與奪의權能이잇스며 組織은 總務、政治、軍事、經濟、國際檢査의 各科로 編成되고 此外特務隊가잇다는데 特務隊는 全新疆省을 鎭壓하고 同時에 共産主義에 反抗하는者를 掃蕩하는機關이라고한다 表面上 軍民分事의兩機關이잇스나 新疆省의 存亡鍵은 政治監察管理局을通하야 迪化蘇聯領事及莫斯科의 스타린氏에게 把握되여 南京政府로부터 派遣된唯一의人物인 省政府建設廳長 高惜冰은恒常沈默을지키고잇슬뿐이라한다

亞細亞石油會社 營業中止를決意
滿洲國石油專賣로

【大連十八日發聯合】滿洲國石油專賣法 實施에 依하야 亞細亞石油會社는 滿洲國과 關東州의 三十年來의 營業權과 販賣施設을 抛棄하기로되엇는바 同社는 一切의 權利를 同一資本系統인 라이징선에 讓渡하고 라이징선은 이미大連에 支社新設의 手續一切를 終了하엿다 右結果로 英國資本家가 從來의 地盤을固守하는데 보다 容易할것이 업게된 터이다 右에 繼하야 米國資本系의 스탠다드와 텍사스는 形勢를 觀하야 地盤固守의 態度에 出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지난一週間은 世界가 多事한一週間이엇다。東京政界에서는 審議會成立에依한 補强工作完成으로 岡田內閣의 危機가解消되어 安堵케된一面에 政友會內의分解作用을 促進하야 **新黨樹立運動** 은 俄然表面化하게되엇다。脫黨한 望月、秋田、水野三氏를 中心으로 灰色分子들의 策動은 日復日猛烈해간다。그러나結局黨首問題인데 黨首에는 床次說、高橋說等이잇스나 去十五日 內田鐵相이 高橋藏相을訪問하야 藏相의出馬를慫慂하고 高橋氏도新黨樹立에 贊同한것等으로보아 高橋氏를推戴코 新黨을세워 政友의大分裂을 還策할모양이다。다음東亞에는 二大快事가잇섯스니 其一은 **比島獨立憲法** 에對한賛否의人民投票인데 十四日의投票施行의結果는 百對三이란 壓倒的多數로 獨立憲法支持를 表明하게되엇다。이리하야 比島共和國聯邦政府는 九月末까지에 成立되리라하니 오랜동안問題되어던 比島는 獨立完成에의一步를 내어드되게되엇다。其二는 列强의年來의懸案이던 **駐中公使昇格** 인데 田外交의 對中外交리라던『提携意圖』는 國內軍部의反對를不顧하고 公使館昇格과南京駐劄을 斷行키로決定發表하야 中國을歡喜케하고 列强을 一驚케하엿다。結局 日本의發議는成功하야 十七日午後五時에 日中이同時에 發表하고 周章狼狽한英米도 追從하야 發表하게되엇다。佛獨도昇格決定을 正式通告하엿다 日英米三國의 初代大使는 有吉、카드간、존슨의現公使가昇任하기로되엇다 다음 歐洲政局이야말로 多事하엿스니 첫재波蘭建國의 元勳이오、獨裁官이던 **필元帥逝去의** 報니十二日에 그가腎臟病으로 長逝하엿는데 이報道는 歐洲에 큰衝動을주엇다、獨佛兩國間에介在한 波蘭의向背가 中歐東歐의 國際政局을 左右케할것이라고 歐洲의視聽이 波蘭에集中되고잇는이때에 波蘭을左右하던 同元帥의逝去는 波蘭을 難關에直面케하엿슬뿐아니라 歐洲를不安에싸이게 하엿다。이러한中에 佛國은 對獨包圍工作을 間斷업시 繼續하야 航空相도냥將軍은 羅馬에 赴하야 뭇솔리니首相과 會談한 結果 十三日 베치아州에서 **佛伊空軍協定** 에調印하야 締結國被襲時의 空軍相互援助를 約束하게되여 一陣을形成하고 一方 라발外相은 波蘭에赴하야 十一、十二兩日동안 벡外相과 會談하얏는데 成果로보아서는 이 **佛波兩國會談** 은큰것이 업섯다하나 兩國親善關係를 强調한데 또한 意義가잇섯다。이어서라발外相은 莫斯科에赴하야 리트비노프蘇外相、스탈린書記長과十三、四、五의三日間 會談한結果 過般調印된 佛蘇協定과는別個로 獨波兩國을含하는 **東歐로카르노**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엿다。이 條約의 中心議題는 不侵略의 協議와 被襲時의共同援助이다。一方 佛國과 佛蘇協定을 締結하고 東歐條約締結에 意見이 一致하게되 蘇聯邦은 또 체코와의 사이에 **蘇체援助條約** 을締結하엿다。이相互援助條約은 十六日프라그에서 베네슈外相(체코)과 蘇聯大使알렉산드롭스키氏와의사이에 調印되엇는데 그內容은 佛蘇協定과大同小異하다고傳한다。同時에兩國航空條約도締結되엿다。또過般발칸四國會議의結果、들어나게된 土耳其의要求는 **다다넬스海峽** 再武裝이니、土國은 今回에 이것을正式要求하기로 決定하고 蘇聯에 그支持를要請한結果 各國에俄然衝擊을與하야 英伊는反對 佛國은憂慮、獨逸은同情的態度를 表明케하고 이調整을爲한 新로잔느會議開催說까지 傳하니 다音會議는벌서부터 多難이豫想된다 다음 **伊『에』紛爭問題** 는 伊의繼續動員과 『에』國에 亦然한强硬態度로 相持하고잇는데英佛이 居中調停할意思를 表明하자 伊首相은『對에問題他國容喙不許』라고放言하야 英國은十六日 突然駐伊大使를召喚하고 十七日緊急閣議를開하야 伊『에』問題를 審議하엿는데 이問題로英佛伊三國會議를 開催할터이라고傳하야 問題는 俄然重大化하게되엇다、끄트로 **獨逸新艦創案** 은또한번世界를 驚愕케하엿다、六十노트의快速艦으로 五名이操縱할수잇고 最少의經費로 最大의性能을 發揮할수잇는、海上의怪物이또出現하엿스니 海軍史上 革命的創案임은 勿論이어니와 이것을본、列强의心思는어떠할가?

日曜氣配

◇期米=政府의米穀策에對한不信任으로 買氣가 沮喪되고 軟派의投賣策動으로 軟調를呈하고잇스나氣配不變

◇株式=新材料待望氣에 雙方共히見送하야 氣配不變 大新九七、二〇 東新一四四、八〇 鐘新一二五、八〇 日産九三、七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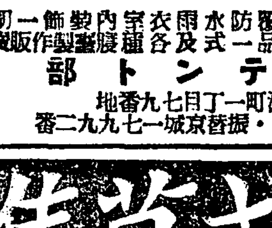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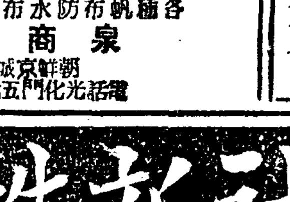
◇綿絲=不變

米日爲替【紐育十八日發聯合】前日比較
買二十八弗八十五仙 七仙高
賣二十八弗九十二仙 六仙高

肺專門療養院 十 院長 醫學博士 金 ... 副院長 ... 電話 一七五番 振替京城一〇六九番

精神病科 入院室完備 原病院 院長 原振緖 電光2643

金銀高價買 大邱中央通 大邱金銀商會 電話一三六七

各種天幕 日覆 雨覆 荷車覆 防水布 帆布 加工品一切 各種衣 ... 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七一一番・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京城紡織株式會社新株式募集

京城紡織株式會社增資趣意

本社는大正八年十月에朴泳孝、金性洙外數氏의發起로서當時零星한朝鮮産業을啓發하야自給自足에依한經濟力을涵養하고또한多數同胞에게職業을施與하며더욱工業的訓練을圖成할趣旨로써創設하야當初織機百臺로써操業을開始한爾來로年復年四次의增設과株金全額百萬圓을拂込하야現在織機六百七十四臺로써最近年生産額五百萬圓에達하게되엇스니前記作業當初年生産額略四十萬圓餘에比하야實로十數倍의增産을하게되엇스나오히려供給不能의品切狀態를呈하고잇슴니다

이에本社는一步를進하야爲先時急한精紡機(二萬一千六百錘)와自動織機(二百二十四臺)를現在永登浦工場에擴張中이며玆에資本金貳百萬圓을增加하야總資本金을參百萬圓으로하고新株式四萬株內에四千株를左記와如히公募하오니朝鮮産業을助長하는意味로多數應募하심을切望하나이다

新株式募集要項

一、資本金 金參百萬圓也(前資本金壹百萬圓(全額拂込濟)今般增資金貳百萬圓(新株券發行))
一、新株總株數 四萬株
一、公募株數 四千株
一、募集金額 金貳拾萬圓
一、壹株의額面及金額 金五拾圓
一、第一回拂込金額 金拾貳圓五拾錢
一、募集株數單位 拾株(單位를十株로하야十株未滿의端數는附치안이함)
一、申込證據金 壹株에 金貳圓五拾錢(申込證據金은拂込金에充當함)
一、募集期間 昭和十年五月二十日부터 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까지
一、募入決定方法 株式申込이公募하는總株數를超過하는時에는其當否는取締役會에서適宜決定함
一、第壹回株金拂込期日 昭和十年六月二十日(株金拂込을하지안는時는申込을無效로하고其申込證據金은此를返還치아니함)

株式申込及拂込取扱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朝鮮殖産銀行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海東銀行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五番地 京城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季洙

有利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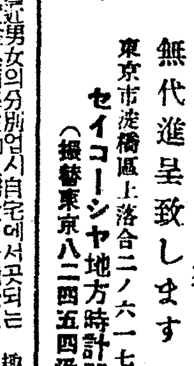
사람은언제든지 한가지事業은반드시해야만이세상서사람답게살수잇는것이다。누구나有利한事業을남보다먼저할나고하는것이事實이다。... 여러가지의有利한事業을나서一般에게傳授하게되엿스니 ...

▲有利事業의一部分=●各種石鹼●各種醬油●洋燭●食초(酢の素)●サイダー●各種白粉●各種クリーム●各種香水●各種ボマード●各種香油●其他日用品、化粧品七十餘種

定價書를請求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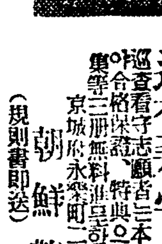
工業原料釀造材料直輸入商 京城錦町四丁目二 榮信社工業所 振替京城二二〇五番 電話光化門一三二四番

月刊野談 二券第五號(通八號)出來!!! 尹白南先生 精力을해監輯한 글자로씨운野談!
◎갑 二十錢(送料一錢)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番地 合名會社 癸酉社 電話本局二三六九番 振替京城二八二二番
◎販賣 全鮮各著名書店



最新 流行型 弊店新カタログ出來!! 無代進呈致します 東京市淺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セイコーシヤ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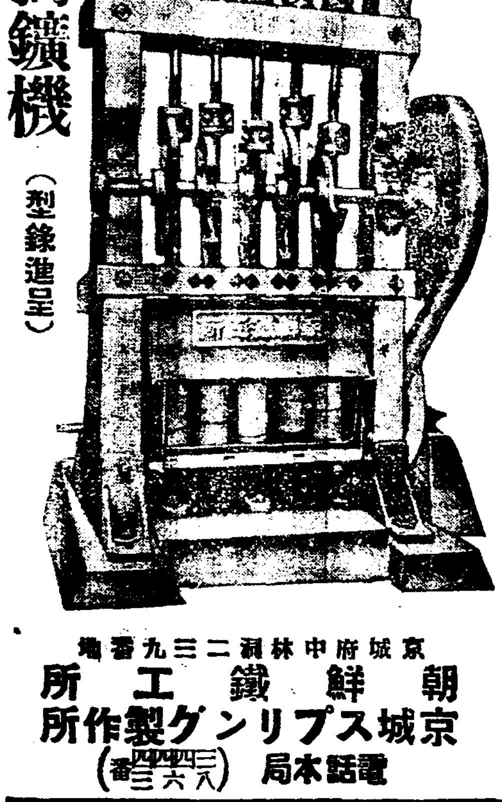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곳되는趣味와實益을兼한生動人婦女子最適한일 無休永續할眞實한곳에依賴할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이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三二〇三〇番 (規則書即送)

立候補 羅津邑議員 申學澈君 羅津有權者一同
立候補 羅津邑議員 金琪宅君 羅津有權者一同
立候補 羅津邑議員 辛鍾昇君 羅津有權者一同
立候補 羅津邑議員 金遠熙君 羅津有權者一同
立候補 羅津邑議員 姜東洛君 羅津有權者一同
立候補 羅津邑議員 金東極君 羅津有權者一同

新發明鑛山機 發條搗鑛機 (型錄進呈)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本局(三)四四三六番

五月十八日부터公開!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大喜劇 頓珍漢大得 全八卷 監督……윌리암사이터氏 主演……로버트울시氏 바트휠러氏
◇新興키네마太秦撮影所作品 戀愛悲劇 南地의離子 全八卷 監督……中南弘氏 主演……高津慶子氏
實寫 全一卷
麻浦桃花洞 電話龍山 一一三 桃花劇場

『막심·고르키』號 空中衝突로大破

世界唯一의蘇聯邦航空機 乘組四十七名慘死

"飛行宮殿"墜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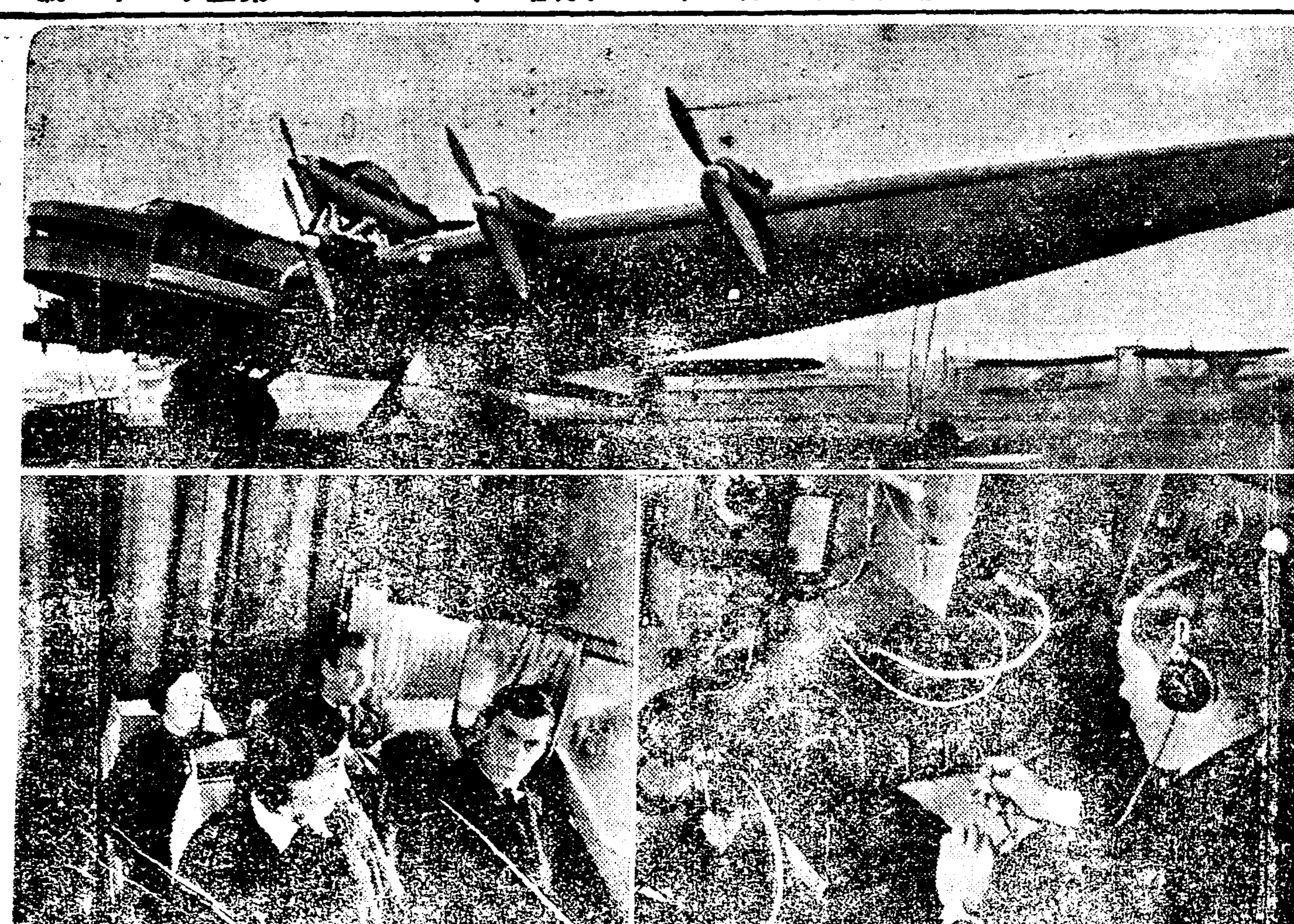
【電通莫斯科十八日發至急報】『싸베트』항공계의 자랑인 세계최대의 륙상비행긔『막심·고르키』호는 십팔일 비행중 다른 비행긔와 공중충돌을하야 추락대파하야 승조원 사십팔명은 비행긔와가티 운명하야 참사를 하엿다

【電通莫斯科十八日發】『막심·고르키』호의 공중충돌은 『모스크바』로부터 멀지안흔 서편교외의 『레닌그라드』로 통하는 국도상공에서 마침그때에 륙군긔수대가 고등비행을 연습중이엿섯는데 그중한대인 두사람탄 정찰긔가 횡전역전(橫轉逆轉)그타의 여러가지 기술을하고잇서서 그것이 우연히『고르키』호의 비행에 대하야 정면으로부터 긔익(機翼)과 충돌하야 량긔는 공중에서 부서저서 『모스크바』서방 교외 약백『메돌』의 지점에 추락 대파하야 처참한광경을 이루엇는바 승조원은 전부참사를 하엿다

◇備考 十八日墜落한 막심꼴키ー號는 世界最大의飛行機로 一九三二年九月 蘇聯의 文豪막심·고르키翁의 文筆生活四十年을 祝賀하기위하야 記念飛行機建造委員會를組織하야 八百萬留의 寄附로 모스크바 中央空氣力學 研究所에서 製作한안도二重翼으로 一九三三年秋에 完成하야 막심·고르키라고 命名한蘇聯航空界가 全世界에자랑하는 超大型飛行으로 總馬力七千馬力速力 每時二百四十키로 翼長七十三米 機長三十二米 五、重量四十二噸 乘員七十名이란 굉장한 물건이다 그리고 고르키號에는 飛行中新聞發行도할수잇게設備가되엿는데 新聞은 特別構造의옵세트石版印刷機로 縱三十센치、橫四十二센치의 큰鑑入新聞을 每時間一萬枚印刷할수잇게되엿스며 또活動寫眞映寫室、休憩室、카페ー、사롱、寢室등무어할것업시 完備되어 그豪華한構造는 驚異의 目標가되어 飛行宮殿이라는 別名이 잇다

快速·豪華의大鵬 佛外相驚嘆식인 KR號의代建機

【莫斯科十八日發聯合】세계의가장우수한 비행기로 싸베트로서아의자랑인『막심·고르키』호는십팔일 오후령시사십오분『모스크바』비행장부근을 비행하든중다른 비행기와충돌추락이되여 탑승자사십칠명은 참사를하엿다 그런데이『막심·고르키』호는 공중에서 라지오방송의 설비까지잇는 총금속제의 단엽기로 전폭이 륙십사미돌 최고시속 이백삼십팔키로 속항능력 이천키로를가저 전허선전용으로 쓰이든것이요 전년에추락한 대비행기케·알(KR)호의대신으로 건조한것이다 그리하야 금년의메ー데ー에는칠백개나되는 비행대의 선두에서서 적색광장의관병식장에서공비행을하야 그위용을자랑하엿고 그뒤에도 각금모스크바의 상공을비행하엿스며 또최근에는 불란서외상라발씨에게 그위용을보여 경탄식힌일도잇섯다



◇大破한 막심고르키ー號 (右는 無電室內部、左는 [illegible])

死亡人員은 總數四十七名!

◇禁斷의曲乘이 慘事의原因◇

【莫斯科十八日發聯合】세계최대의단엽기『막심·고르키』호의 추락에관하야 십팔일다음과가티 공표하엿다

『막심·고르키』호추락사건은십팔일오후령시사십분『모스크바』중앙비행장에서비행사『유ー로프』조종으로 제이비행사『미헤ー프』의 조종으로 승객은 중앙항공력연구소원(中央航空力研究所員) 로동돌격대원(勞働突擊隊員)삼십륙명을태우고『불라긴』비행사조종의 련락긔를 데리고 비행을 하엿는데 비행중에는 절대로 고등비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엄명하엿슴에 불구하고 동반긔의 비행사『불라긴』씨는 금제를 범하야『고르키』호가까이서 고등비행을하야 칠백미돌상공에서『거구르넘기』를 하다가 긔체를『고르키』호에 부듸첫다 그리자제아모리 크고튼튼한『고르키』호도 이 충격에는 견듸지못하야 비행장부근인『소콜촌』에 추락되어조종사 긔관사등승조원십일명 승객사 연구소원、돌격대원、기사、기수종업원과 가족까지 합하야삼십륙명、게사십팔명이 추락참사하엿고 부라긴비행사도 추락과 동시에 참사하엿다

遺族에게年金贈與

정부로부터 싸베트국비로 장례를지내기로하고 또정부는 각유족에게 조위금일만원과년금을 주기로 결정하엿다

救援隊急行

선후책을강구중

【電通莫斯科十八日發】『싸베ー트』정부당국은『막심꼴키ー』호의 충돌추락의보고를접하고 즉시 소방자동차와 구호자동차에 급구호대원을 만재하야현장에 급파하엿스며 군대와협력하야 일반군중이몰려들지못하도록 금지한후시체의 수용과 추락현장의 처치에 전력을다하는동시에 선후책을강구하는중이다

遊覽機또墜落 別府서三名死傷

【電通別府電話】일본항공수송연구소(日本航空輸送研究所)의별부대판(別府大阪)간 정긔비행긔신풍호(神風號)는 십구일 일요일에 별부유람비행을 하기위하야 오전열시반 별부경찰서의 시야(矢野)(三?)부장과 수상파출소의 복부(服部)순사를태우고 청수(淸水)일등비행사의 조종으로 별부상공을 비행할지음에 긔관에고장이생기어 동오십분에 불시착을하려다가 학수원(鶴水園)뒤의『레니스코ー트』의『네트』에걸리며 땅재주를넘다가 파거장에전복되어 긔체는 산산히부서지고 시야、복부양인은즉사 청수조종사는 생명이위독하다

孫義庵還元祈禱

시내경운동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십구일이 동교제삼세교조손의암(第三世教祖孫義庵)의 환원제십삼회 긔도일임으로 오전열한시 동교당안에서 리세헌(李世憲)씨 집례하에 리종린(李鍾麟)씨긔도사와 동교소년부 창대의 긔도가(祈禱歌)합창으로 식을거행하고 동열두시에 폐식하엿다한다

土崩으로 二人死傷 市內山手町서

십구일오전아홉시반에 시내산수정(山手町)이번지에서 지반공사를하느라고 인부네명이 흙을파며지게로 운반하든중금정(錦町)십칠번지 김종성(金鍾成)(三○)과 청수정(淸水町) 박순근(朴順根)(三○)의두사람이흙을지게에지고잇슬때에돌연말천가량되는언덕이무너지면서 김종성은거기에 치어 즉사하엿고 박순근은량편다리를 부상하엿다 급보를접한 소관동산서에서는 고교(高橋)사법주임이현장에 출동하야 사망자의검시를하는일방 부상자는 황금정 부민병원에수용치료케하엿다

交通安全데에 交通事故一束

『교통안전데ー』라고거리거리에 순사가 느러서서 교통정리를하고잇는한편 교통사고는 평일보다더만히생기고잇다

▲십칠일오후 열시경시외공덕리(孔德里) 십이번지 경성제과회사(京城製菓會社)녀직공리순이(李順伊)(一○)라는소녀가 야업을 마치고 집으로도라가느라고 우산을밧고 시내고시정(古市町)사십삼번지압을 지날지음에 본정이정목 본정태씨의 운전수 김희정(金喜井)(二五)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어머리와 허리 다리의 관절등을 부상하여 즉시 부근 세부란스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중이나 방금 생명이위독하다

▲십칠일오후세시사십분경금정이정목 중서(中西)자전거점의점원 박영근(朴永根)(一八)은 자전거를 타고동사정목일백륙십일번지압을지나다가 주교정(舟橋町)삼백십구번지 앵정수자(櫻井秀子)(七)를치어 전치십일간의부상을 사켯다

▲십칠일오후 열한시반경시내 련건동(蓮建洞)이백칠십번지김성주(金聖柱)(二五)가 경성부청압헤서 본정다무마태시의 운전수 길전의일(吉田義一)(二五)이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어전치일주일의 부상을하고부근전중환(田中丸)병원에서 치료를바더다

▲십칠일오후여섯시반경시외상왕십리(上往十里)삼백삼십삼번지 배천학(裵千鶴)(五?)은마차를 끌고 계동(桂洞)일백이십사번지압을지나다가 동일백삼십구번지 리흥히(李興熙)(六)를치어 외인편무릅과 풀절등치료이주일의중상을식혓고

滿洲土匪越境 同胞一名을慘殺

義州水鎭面水口洞서

【新義州】지난십칠일오전세시에 압록강상에 잇는평북 의주군수진면수구동소도리(義州郡水鎭面水口洞小島里)에세명이토병이나타나주민 한창화(韓昌和)(三?)를 따려죽이고 다라낫다 이급보를 접한수진경관주재소(水鎭駐在所)에서는본서(의주서)의응원을어더 가지고현장에 급행하야 적단의 행방을수색중이라한다

刑事로假裝하고 所行은强盜질 犯人群山署에打盡

【群山】지난십일일오전령시경옥구군대야면 보덕리(沃溝郡大野面寶德里)사는 전판순(田判順)리충순(李忠純)두사람이 동리에서 잡화상하는 한봉수(韓奉洙)상점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도라가는바들연 배후에서 사십전후의괴한명이 나타나서 우리는 형사인데 어데를갓다가 오느냐 함으로 그들은 전긔한봉수집에서술을바더먹고집에가는길이라한즉 전긔괴한은 그러면그집에를 어가보자고하며 그들을한봉수의 집에데리고가서이들은절도이니절도집한놈들이 은닉하야 잇슬것이라하고 가택을수색한다음 현금삼십원과 기타 저금통장등을 강탈하야 갓다는데 급보를접한군산경찰서에서는 범인수사에 로력중이던바 지난십륙일오전에 시경에 전긔범인량명을 전부체포하얏다는바 그들은 모두전과자들로서 주소부정의 리천만(李天萬)추고마(秋高馬)의 량명이라고한다

深夜의最後客이 翌朝에屍體되여 魔藥中毒者의末路

심야에도라온 최후의 손님이 이튼날아춤에는 시체가된 변사사건이잇섯다 춘향의 고향남원(南原)의 명창(名唱)김정문(金正文)은 시내관훈동(寬勳洞)사번지의일호 조선성악연구소(朝鮮聲樂研究所)의 초빙을바더가지고사오일전에 상경하야 그곳에서여구생에게 노래를가르치고 잇섯는데 십팔일에는 시외청량리청량관(淸凉館)녀주인의 생일잔채에 불려갓다가 밤열두시경에 맨마지막으로 자동차에 실려전기연구소로 돌아와다고한다 이튼날 아춤에 종내깨여나는기색이업스므로 그곳사람들이 드려가보앗드니 의외에도 그는시체가되여잇섯다고한다 급보를 바든종로서에서는 곳횡전(橫田)부장이 민(閔)경찰의와함께 현장에출동하야 검시한결과『몰핀』중독으로 인한심장마비로죽은것이 판명되엇다고한다

佛身魔心의老漢 少女를誘引賣喫 危機一髮에救出

꼿피는서울에 직업을차저와다가 친절한아저씨에게 짓밟힌우혜이백원의 전차금을 질머지고북쪽국경으로 팔려가다가 위긔일발인 지경에서 마침 경찰에구원된 회색의 결혼집자로에 그려진『미완성곡』(未完成就行進曲)일곡ー 십팔일밤열한시경에 순찰하든종로서원은 와룡동(臥龍洞)오십오번지에서녀자의비명소리가 심하게남으로 쪼차드러가보앗드니 한중년의사나히가 어린녀자를끌방에몰아너코 따리고잇섯스므로 경관은그들을 본서까지 동행하고취조한결과 의외에도 아래와가튼사실이 탄로되엿다 경부선 전의역전(全義驛前)동교리(東橋里)에사는 서영희(徐英熙)(一九)라는 처녀는 지난삼월이십일경에 한동리 리화성(李化成)의 집에와잇는 그집주인의아우라는 시내광희정(光熙町)이정목 일백팔십삼번지 리인갑(李仁甲)(四?)을 아럿는데 이『서울아저씨』가들려주는 서울이야기그중에서도 현란한녀공의생활은서영희의귀를 황홀케하엿다 그래서 서영희는 곳먼저올라온리인갑을 크게밋고 서울로올라와서 차저갓드니 그는 약속한직업은 어더주지안코 시내와룡동(臥龍洞)오십오번지에 삐뚤어진애욕의 소굴을정하고는 억지로 동서생활을 시작햇다 날이가고 달이 가는동안에 녀자는 사나히가 입즉이 그때까지팔어먹은 무서운 경력이잇는 암흑가의폭군인것을 알고는 여러번그독아를 버서나려고햇스나 감시가 원악심하야 도망을 못하고잇드니 십팔일에는 사나히는 녀자를 함경북도 어느지방의 술집에 전차금이백원을밧고팔고는 다려가도록하엿다고한다 그러나녀자는우지가사 안켓다고버틔엿드니 그날밤에사나히는 녀자를 끌방에몰아너코 따리면서 위협하고 잇든것인데 그서에서는 곳사나히는 유괴피의자로 류치하고 방금엄중히취조하는중이다

"男便보다 서울이조와" 시골안해의꿈

시악씨는 서울이조탄다ー춘천읍체성정(春川邑體成町)이번지 조사만(趙仕萬)의안해 리씨(李氏)(二○)는 지난구일에 슬그머니집을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는련지동(蓮池洞)일백십오번지의십일호그의이모 정의원(鄭義源)의집에와잇스면서 도모지 집으로도라가지아니하야 그남편은 십구일아춤에 멀리서울까지 안해를차저왓드니 안해는 그이모의집에도 잇지안코 시외청량리(淸凉里)동일려관(東一旅館)에가서잇스면서 나오지아니하야 필경남편은동대문서에 와서애원하야 그서의 알선으로 이부는열흘만에대면햇스나 자못『로맨틱』해야할이상봉장면은 녀자가 죽어도시골로는 가지안는다고 버티는바람에 산산히깨여젓다고한다 그서에서는 할일업시 일시녀자를보호해두고 설유하는중이다

氣象豫報 曇一時晴

高氣壓은 日本東南方海上에擴大되여잇고 日本으로부터東中國海에 氣壓이多少놉다 沿海州、滿洲에는 七四二미리의低氣壓이잇서서 各히東進中이다 今朝大槪흐리고 바람은弱하다 氣溫은江陵의一九度 雄基의七度사이에잇다 明日은大體흐림뜻하다

最高	二一、六
最低	一○、六
今日正午	二○、六

球君有罪 아기重傷 일반이주의할일

한길은 위험한운동장이다ー십구일오전여덜시십분경에 시내서대문정일정목 일번지의 이십이호 회장중상리렴주(李廉周)의셋재아들 리정석(李鼎石)(三)은 자기집압 행길에서 공을가지고 작난을하다가 공이전차길에 굴러갓스므로 집으려 드러갓는데 때마침동대문에서달려오든 일백오십륙호전차가 이것을발견하고 위긔일발에 급히정거하엿스나 아기는 필경머리를 전차모에다처서 부근동서병원에입원치료중인데전치삼일가량의 상처라고한다

첵코二對一로優勢 떼杯歐洲존

【電通부라ー그十八日發】떼杯歐洲존第一回戰첵코對유고 第一日의複式은 第一日에一對一의 뒤를이어 十八日當地에서 擧行한바 첵코二對一로리ー드하고잇다

멘젤·헤히트(첵코) 4─5 6─1 6─2 8─6 6─2 분세그·굴자보(유고)

氷上의女傑 뿌루가ー孃 日本青年과結婚

【電通東京電話】지난一月에日本을訪問하엿든 銀盤의女王(피규어選手)뿌루가ー孃(二五)은日本青年西川眞吉君(二○)과結婚을 하기로되엿다한다 同孃은 日本訪問時에前記 西川君이 親切히接待하여준것이 因緣이되여 結婚을하기까지에 進展되엿다 同孃은 墺太利『빈』市出生으로 世界女流피규어스케ー팅界의 優秀한選手이다

米國籠球連勝 對名古屋戰에

米國70 (41 29 / 13 14) 27名古屋

日本遠征中의 米國올스타ー籠球團對全名古屋籠球戰은 지난十六日午後三時四十分부터 名古屋市에서行한바 米國壓倒的優勢를보이며 七十對二十七로 大勝하엿다

運動競技 中等庭球 正午까지戰績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 全朝鮮庭球大會는 十九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局코ー트에서 參加六十二組에 達하는 大盛況裡에열린바 이날正午까지의經過는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徽文(金漢興 宋裕季) 4─1 善隣(徐南元 方盛基)
普成(李昌汶 田文秀) 4─1 京農(金 李)
高一(李燦) 4─1 高二(閔泳甫 金在鎬)
徽文(閔丙鐵 崔炳甸) 4─1 善隣(宋三鉉 金乙鉉)

東中(申東一 鄭斗和) 4─4 東大(尹杵 金龍男)
龍中(安 西村) 4─1 成普(金在德 金形熙)
養正(金成學 金桂國) 4─2 高二(閔丙玉 鄭俊淑)
養正(朱漢鎬 韓世元) 4─3 文徽(李景煥 金亨彬)
大東(朴炳錄 李裕鎬) 4─1 鐵道(崔修 田行)
仁商(金東玉 崔亨集) 4─0 京商(相馬 兒島)
中東(李正用 安芳善) 4─1 高二(李正基 崔根甸)
大東(沈炳權 鄭中國) 4─0 高一(崔 尹)
仁商(邊德勳 朴亨植) 4─2 道商(金 金)
養正(任宗淳 朴鎬求) 4─2 文徽(申東鼓 韓興錄)
善隣(吳 朱) 4─1 鐵道(小德 茂永)
京商(木村 毛利) 4─2 善隣(張萬吉 丁浩鎭)

男子中等籠球 中央豫選第一日

男子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中央豫選第一日은 十九日午前十時부터 第二高普코ー트에서 擧行한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經過는다음과갓다

道商(尹上 谷) 4─1 京工(韓鎭)
養正(張鳳祚 金伏岡) 4─3 大東(張玉鉉 中谷郁)

男子中等排球 第一日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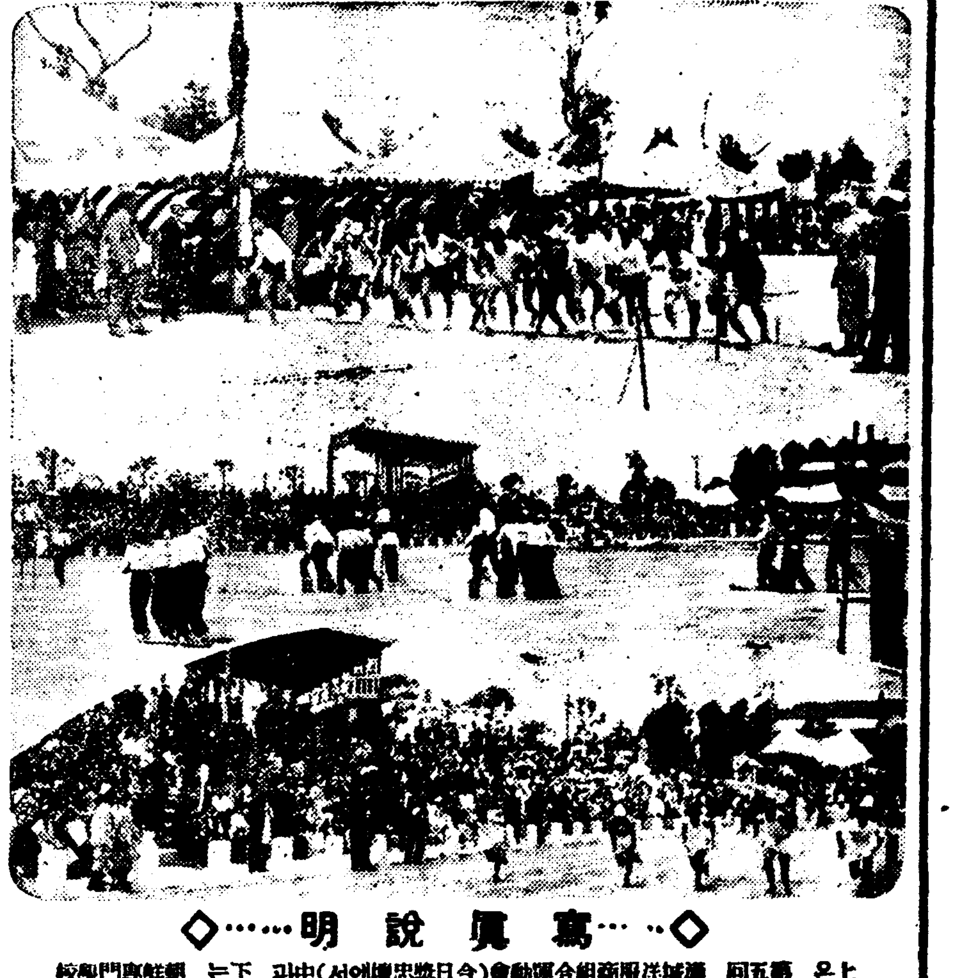
道商25 (14 11 / 13 5) 18東商
善隣41 (19 22 / 14 10) 24仁商

京城男子中等校排球리ー그戰의第一日은 十八日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局코ー트에서 行한바當日의戰績은다음과갓다

善隣2 (21 21 / 9 14) 0二高
京師2 (21 21 / 19 19) 0龍中
一高2 (21 21 / 11 5) 0二高
京師2 (21 21 / 16 10) 0一高

◇第二日의戰績

龍中2 (21 21 / 6 10) 0善隣
京師2 (21 21 / 16 9) 0善隣
龍中2 (22 21 / 20 13) 0一高
京師2 (21 21 / 7 11) 0二高



◇……寫眞說明……◇

上은第五回漢城洋服商組合運動會(今日獎忠壇에서) 中과 下는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第十一回陸上運動競技大會光景(今日京城運動場에서)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제가 절대로 보증하는, 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최고최량약으로써 찬양사용하며, 또

이것은 절대우량약을너코 그약효에대해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 도로드릴것이며『이이상가는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신념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별별치료를 다해보아도효과업슨 환자는하로바삐 이약으로써 전치되시라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전치자속출, 례장이산갓다

山口縣山口市 古屋準吉 — 본인은 지난일월경부터 림질이 돌발하야, 곳산누전매소에서 삼원짜리와 사원짜리를 연속복용하엿더니, 심하든통증이업서지고 나어갑니다

岐阜縣可兒郡 墨田萬司 — 소생이 만성림질로 발병한지 일년이되엿습니다마는 귀사의 치림제로 전치하엿습니다 이번에도 재발하엿기에 역시 귀사의 치림제를 복용하야 오날까지 이주일만에, 경과가량호합니다

新潟縣中頸城郡 石田正義 — 본인은 림질에 걸리어 이번 귀사의 림질약을 사용하엿삽더니 차차나어갑니다

秋田縣平鹿郡 佐佐木雄吉 — 귀사의 림질약복용후 딸렉, 림사는 거의보이지안습니다

鳥取縣東伯郡 谷口輝雄 — 림질로 고생하옵더니 복약후의 경과가 양호하야 아픔과고롬이 개이고 보통때와 다름업시 되엿습니다

府下泉北郡 山本正香 — 귀사의 치림약복용한후에 일로 고름이멈치고 쾌차해갑니다

神戶市灘區 山村喜一 — 의사와 그외의약도 복용하엿습니다마는 전쾌되지도 아니하야 친지에게 귀사의 림질약이 잘듯는다는 말을듯고 세병을 사다가 먹엇습니다 지금은 고름도그치고 아픔도개여 전치되엿습니다

香川縣三豐郡 白川優 — 소생이 매독으로 고생하더니 덕분에 그후는날로조하저서 지금엔 아조 거의 국부의상처도 낫습니다 오직 귀사의약의 조흔덕분인줄 아옵고감사하나이다

이상은 지면에 한이잇스므로 례장의 일부를 게재함에 불과합니다 도보자의주약은 의약학상 최고권위약으로 정평이잇습니다. 그절대효력은 다년임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 전치약으로 추장하시는 근본적치료약입니다 하로밧삐 이약으로 전치하십시요.

림질 병제(팔일분)팔원 약두제(팔일분)사원
매독 병제(십칠일분)팔원 약두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七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이므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錬兵町 有田도락구
平壤 本町 有田도락구
釜山 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 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 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 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 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 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 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 京町 有田도락구
馬山 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 港 有田도락구
淸津 本町 有田도락구
釜二 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 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 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 櫻町 有田도락구
元山 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 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 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 四番三 有田도락구
奉天 驛前 有田도락구
撫順 東六條 有田도락구
開原 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 大盛路 有田도락구
新京 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賓 傅家甸 有田도락구
大連 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全鮮第一映畵殿堂 電光九七 團成社

유나이데트百萬弗映畵 羅馬太平記恐怖城
◆大朝世界ニュース와漫畵 五篇
―(次週特別大興行)―
未完成交響樂
◆果然白熱的人氣!! 榮譽大作發聲의 悲戀의秘曲 二週續映斷行!!
名畵 痴人의사랑 레스리、하와드ー氏 主演
R.K.O.라디오超特作 日本版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午後七時半
五月二十日부터 人氣는正히白熱! 二週續映

貫鐵洞 電光三五? 優美館

五月十五日낫부터大興行 每日三回 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入場料 大人(五十錢)(階下大人三十錢) 小人(三十錢)(下小人二十錢)
◎JOスタヂオ協同第一回作品 音樂映畵 百萬人의合唱 監督 富岡敦雄 夏川靜江、伏見信子 主演 小唄勝太郎、藤山一郎、市丸
◎松竹蒲田特作 戀愛修學旅行 大日方傳、桑野通子 主演 清水宏 監督
朝鮮名劇 洪吉童傳
怪獸스타당그 印度바라그國王 後援
豪勇깃도 冒險王
錦旗の下に 大都映畵
白銀의妙技
보ー린의冒險

仁寺洞 電光三二 朝鮮劇場

十八日特別大公開 半島映畵ファン待望の『貞操問答』
大阪每日東京日日連載 菊池寬原作 鈴木重吉監督 貞操問答(前篇) 錄音富士發聲フイルム社
入江プロ第二回オール·トーキー 新興キネマ特別提供 都會の谷 入江たか子 主演 鈴木傳明 岡田靜江 山縣直代 競演
新興キネマ時代劇超特作 メ園千枝子 汐見洋 立松晃 メ原かほる 助演 原作 山內英三 監督 押本七之輔
安中草三 流れ雲榛名峠 美劍士 大谷日出夫 主演 泉淸子 牧英勝 助演
パラマウント超豪級日本版爆笑篇 ヒヨットコ六人組 原作 キーン·タンプスン 監督 レオ·マッケリー
珍優總出演 WCフイールズ、チャーリイ·ラッグルス、メリイ·ボーランド、ジョージ·バーンズ、アレンメアリスン 競演
(晝間)十二時三十分ヨリ (夜間)六時三十分ヨリ

永樂町 中央館

千餘火田民中엔 浮黃病者가 續出
麥嶺을 아직도 月餘의 아페둔 聞慶郡下의 窮乏之相

【聞慶】 작년의수해와조랭으로문경군동로면(聞慶郡東魯面)일대의 화전민 일천오백여명은 수확이 개무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그도계진하여 리향자가속출하는현상으로 군당국에서는 삼천원의예산으로 구급중이나 홍로적설에 지나지못한다함은 수차보도하엿거니와 더구나지금은 맥령이므로 그절정에 다다라서 수개월을두고 굶주린그들중에는 부황병에 걸린사람이 속출하야 맥령도 아족한달이나남은그들의 전도는 참으로암담하다고한다

羅津에電話增設
【羅津】 나진우편국에서는 전화신입자추첨이잇섯는데 증설대수는 구십개로 그중에서 곽공서용십구개를 제하고 나머지칠십일개를 일반신입자 사백팔인에게 추첨으로배게하엿다한다

勞働者側勝利로 盟罷事件解決
埋築人夫盟罷後報

【城津】 기보=무산영림서성진목재판매소용지 매축공사에 종사하는 로동자칠십오명은 지난구일부터 단가인상을 요구조건으로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일시는 량편이강경하게 나가든바 청부업자측의양보로 재래사석한차의단가오전중에서 감독수당으로 오리식 감하든것을 폐지하고금후부터는 감독수당을 매일칠십전식 청부업자가 담당하고사석 채취단가는 이리를인상하야 한차에 사전칠리식결정하고 사건은 원만해결되여 지난십륙일부터 그들은일제히 취업하엿다고 한다

信者熱誠으로 教會堂을修築

【固城】 경남고성읍 긔독교회에서는 허려저가는 동교강당을수축코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부터 이백여교도들의 열성찬조금 기타 수입금오백여원과 다시김사은(金思恩)외제씨의 열성금사백여원 합일천여원의 수축비를 조달하야 교회강당을수축하기로 한바 구건물에비하면 문화적건물이되리라하며 더욱동교회의경영인 자명유치원의 내부시설에도 금번수축에따라 원만이확축하리라한다

세멘트牛車 三歲兒를 轢殺

【价川】 자부와부모의부주의로 생긴참변! 평남개천군 조양면신립리(价川郡朝陽面新立里)우차부 조사청(趙士淸)(多)은지난십륙일 오후세시경에 개천에서 세멘트를실고 집으로 도라가는길에 시내어떤 상점에서 물건을사노라고 갑시지체하는 동안소는 그냥 차를끌고 가다가 마침 개천경찰서에 근무하는 전와병오(田鍋丙午)순사의 장남인 선신(善信)(三)이 가어머니를 따라 행길에 나와다가 어머니는 누구와 담화를하는동안 혼자 도라다니는것을 처여 즉사케하엿다는데 차부는즉시개천서에 검속되고 자식을죽여버린어머니의 창황하여 하는처경은보는자로 하여금 실경을서늘케하엿다한다

溫陽溫泉에 火災

【牙山】 충남아산군온양온천(溫陽溫泉)바 원상(杉元三)씨 정미소건조장에서는 지난십칠일 오후오시경에 삼천석(三千石)노적에 불이부터 일시는 대혼잡이엿스나 오전소방대의필사적노력으로 동일오후 륙시에 겨우진화되엿는바 손해액은방금조사중이나 막대한모양이며 발화원인은 자세히알수업스나아이들의 불작란인듯하다고 한다

에서는 방금개량준비중인 경남동부선터하여전술 중심으로 신흥터하건설에 낫이어든중 이재구터 역전으로 어천하려고 준비중이든바 지난십삼일 신시장을개시하게되엿는데 맛참이날은 아침부터 비가나려서흥행에도 불편이 막대하엿스나 운집한군중은 만여명에달하엿스며 각종, 로점은 천막아래서 청홍오색으로 시가를 차식하고 특히금융조합, 산업조합의 조합원부업품평매시장은 상상이상의대성황을 이루엇다 당시청년회주최로 각희대회(脚戲大會)를 개최하야십사일에는 전일이상의성황을 이루엇는데 시일(市日)은오일륙일, 칠일이라한다

信川郡蘆月面의 貯水池問題解決

【安岳】 문제중에잇든 황해도신천군로월면저수지(信川郡蘆月面貯水池)사건은 신천군수 홍한규(洪翰奎)씨이하 각관계 인사들의알선으로 원만한해결을 보게되엿다는데 그문제되엿든 동기와 해결된내용을 소개하면 전긔 로월면 의둔리(宜屯里)에소재한 초생지(草生地)인 저수지면적 백이십여정보는동면 의둔오국, 정례, 덕성, 쌍교(宜屯五局、貞禮、德成、雙橋)등 오개리의경지면적 팔백여정보의 삼천여주민의생명가티 되여잇는 관개저수지이고 음료수(飮料水)이든바 서강개수공사(西江改修工事)를착수하게되엿고 그몽리내의리익을탐하는 간상배들로도당국에교섭하야 전긔백이십여정보의 저수지를대부(貸付)를맛허가지고 긔답경작(起畓耕作)코저 함으로삼천여주민의생명수인저수지를긔답케되면 이것으로사활문제가되므로관계면민은대회를열고 그의대책을강구한결과주민들의련서로도당국에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는일방군내각관계당국에사실을 탄원하엿든결과신천군수홍한규씨의알선과 각관계인사들의 부단의노력으로 전긔저수지를로월면영(面營)으로 십년간년부로 매수하기를결정이되여 다단하든 문제는 해결의서광을보게되엿다 한다

黃海主日學校 協議會開催促進

【長淵】 장연군속달면 태탄교회당(長淵郡速達面苔灘教會堂)에서는 금월십사일 오전팔시부터제십일회 황해주일학교협의회를개최한바출석인원은 삼사십인으로좌긔임원을개선하고 동일오후오시에산회하엿다한다 會長元春道 副會長李昌寶 書記朴周陽 會計鄭大裕 總務張弘範

늑대가出現

【元山】 지난십륙일 오전십일시반경에 원산부외석우동 산에는늑대두머리가 돌연나타나서 동명석동(銘石洞)안남규(安南奎)씨의 목양장(牧羊場)에잇는 양한머리를 물고가려는것을 사람들이고함을지르며 추격하여 늑대는그양다려나버린 근래에드믄일이잇섯다고한다

德下市場移轉

【蔚山】 울산군청량면 덕하(靑良面德下)

躍進하는仁川港 北村道路도 新裝
工費十一萬餘圓으로

【仁川】 보도(步道)차도(車道)별로아스팔트의경인신장의산업도로는 경성을긔점으로 영등포까지완성되엿고 인천을긔점으로는 부천군(富川郡)장의리(長意里)까지완성되엿을뿐아니라 경인도로연변에 구분을때여 약륙칠개소에서 산업도로의 일회공사도금번으로서 종료될것이다 이에따라서 경성의관문의체면을 유지코자 인천시내축항을 중심으로한도로를 신장하는동시 부촌의 자동차까지 통행치못하는 송현리(松峴里)에는 동지주 무원세일(茂原稅一)씨의긔부로상인천역앞편에화평리(花平里)로부터우각리(牛角里)까지칠척의도로가 근근완성되게됨을따라 또한 십일만팔천원의 경비로제일공보(第一公普)압흐로부터 송현리해변까지 일등도로를 신장하리라는대 전긔신장도로가완성되면 송현리공설시장과 함께부촌에 각종시설의 위관을정하리라한다

◇全朝鮮蹴球大會=(平壤)=(一)小學團優勝 聖母普校軍 (二)中學團優勝 崇仁商業軍 (三)青年團優勝 崇實專門軍 (四)實業團優勝 世昌고무軍

平壤의 年中盛事 全朝鮮蹴球終幕
全市民白熱的人氣속에

【平壤】 관서체육회주최제십일회전조선축구대회 제삼일은십팔일오전아홉시부터 모란봉하 신록의향긔가 무르녹은 공설구장(公設球場)에서 열리엇다 토요일이오 겸하여 청명한일긔와 바람한점업는천긔는 극히조흔『컨듸슌』이엇섯다

실업단의 준결승을비롯하여소학단 중학단 청년단 실업단의의결승일인만큼 쏘다저드는관중은 사만을 손꼽게되여 넓은운동장은립추의여지가 업시가득히 메웟다

각학교각단체의 울고뚜드리는 군악의음률도 대지를진동하거니와 사만여명의박수환호성은 평양강산을잡어흔드럿다

소학단은 성모보통학교(聖母普校)가 련이승햇고 중학단은 숭인상업(崇仁商業)이 와신상담십륙년만에 강적정주오산고보(定州五山高普)숭실중학(崇中)그리구 최후로 광성고보(光成高普)를격퇴하고 패업을성취하여 영예잇는우승긔를 진두에 놉히휘날리니 선수와응원단 그리구선생 학부형 졸업생들은 깃븜에 넘치는 눈물쏫차 흘엿다청년단은 숭실전문(崇專)이 선우단을오대령으로 쉽게익이어 사년만에우승긔를 또다시 차지하엿고 실업단세창(世昌)고무가대동(大同)고무를 역시오대령으로격퇴하여 우승을하엿다 이리하여이십개단체의 사백여명용사가각자긔의학교의명예와단체의명예를억개에질머지고 삼일간불꼿을날리는 백열전을연출하여 익여서조코 저도못그럽지안흔활약을하여 청년조선의용감한의긔를뽐내인것이다 이여서 우승단성모보통학교, 숭인상업학교, 숭실전문학교, 세창고무의 네단체에게 우승긔, 우승메달, 읫늑뿔을 대장자조만식(曺晩植)씨로부터 수여하고관서체육회만세삼창으로 원만무사한가운대서 동일오후시삼십분경에 산회하엿다

小學團決勝
聖母 1—0 信友

【聖母】 [illegible]

【信友】 [illegible]

中學團決勝
崇商 1—0 光高

【光高】 [illegible]

【崇商】 [illegible]

青年團決勝
崇專 5 善友 0

【崇專】 [illegible]

【善友】 [illegible]

實業團決勝
世昌 5—0 大同

【世昌】 [illegible]

【大同】 [illegible]

라디오

十九日 (日曜)
◇午後六時三〇分 피아노獨奏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物質文明과宗教的使命 李容卨
◇同八時 첼로獨奏 一、어머니가가르켜주신노래 드보르작作曲 二、G線上의아리아 빠하作曲 三、기다려 모스코우스키作曲 四、론도 드보르작作曲 五、夢後에 푸-레作曲 高勇吉 伴奏 J·B스루데니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淸歌 丁貞烈 鼓手 丁元燮
◇同九時 獨唱과바이올린獨奏 一、獨唱 더조흔땅 코엔作曲 二、바이올린獨奏 叙詩曲 브-ㄹ作曲 三、獨唱봄노래 玄濟明作曲 四、바이올린獨奏 小夜曲 드르들라作曲 五、獨唱 아베마리아 구노作曲 獨唱…李仁範 바이올린獨奏…金生麗 피아노伴奏…A L 뻭커
◇同九時三十分 時調와短簫獨奏 一、時調 (가) 男唱 平時調 (나) 女唱平時調 (다) 辭說時調 (라) 女唱지름 二、短簫獨奏 淸蟹자진한닙 尹從善 奚琴 池龍九

二十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土亭의奇訓 姜琪元
◇同二時 常識講座 年齡과法律關係 (一) 尹元上
◇同六時三十分 童謠 一、齊唱 나팔꼿 二、獨唱 자장가 三、齊唱 대장간 四、獨唱 봉사꼿 五、齊唱 조희베 六、獨唱 시집가신누나 七、齊唱 제비남매 八、獨唱 고향의봄 九、齊唱 고사리나물 十、獨唱 하늘나라저쪽 十一、齊唱 달따라가자 指揮及伴奏 白鷗會
◇同六時五六分 經濟解說 人絹操業短縮에對하야 林炳祐
◇同八時 講演 議員選擧에對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小牧師 朴應冕 音樂伴奏
◇同九時 音律 鍾山會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三〇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執杖歌 三、방아타령 四、梁山道 五、漢江水打鈴 張香蘭 張瓊蘭

二十一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길念佛 二、打鈴 三、靑春歌 四、密陽아리랑 五、京아리랑 六、노래가락 奚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二時 常識講座 年齡과法律關係 (二) 崔元上
◇同六時三〇分 童話 엿단지 睦一信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夏節의室內昆虫 (一) 梨花女高 趙福成
◇同八時三〇分 평타령外 一、평타령 二、處女歌 三、사슴방아 四、등게타령 五、岳陽樓 六、山念佛 閔亨植 許英淑
◇同九時 (大) 歌劇=大阪朝日會館으로부터中繼=黑船 프로에므니아 山田耕筰作曲 오키치(お吉)…三上孝子 夜警(火の番…)奥田良三 寶塚交響管絃樂團 合唱…코-라니나와 아사히코-러스 關西學院그리클 指揮 山田耕作
◇同九時三十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沈淸歌中 沈奉士皇城으로올나가는데 金正文 鼓手 韓俊成

暦
五月二十日 (月) (舊四月建辛巳(小)十八日) 丙申·火·畢·平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未時·開市·納財에宜함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그女子의一生
春園 作 夕影 畵 【106】
婚姻篇

「아버지」 하고 인현은 진정으로 동정하는 어조로 정규를불럿다. 정규는 대답대신으로 눈만을 아들에게로 돌렷다.

「김서방이 돈을 얼마나 밧으면 말성을 안 부릴것 갓습니까」 하고 인현은 정규에게 물엇다.

「글세 돈이 어듸 잇니?」 하고 정규는 담뱃대를 입에서 빼어든다.

「아니, 돈을 준다면 얼마나주면 될것 갓습니까」

정규는 손으로 목덜미를 만지더니,

「현금으로 이천원만 주면 떨어질것 갓기는 하다마는 어듸 이천원이 잇니?」

「이천원만 내라구 김서방이그래요?」

「제 입으로야 큰 소리를 하지마는 저도 우리집 사정을 다 알거든. 그런데 그녀석이 저 림〇〇네 가개를 살 말을 비치는것을 보니까 한 이천원만 더주면 될것 갓단말이다. 그래 돈이천원이어듸서 나와? 식산은행 삼천원 수형긔일이 어저께 지나가서 부도가 나고 안땅이 경매를 당하게 되어도 협수업는데。」

「그럼 아버지는 어떠케 하실작정으로 계서요?」

「무얼 어떠케 해? 고소를 허겟거든 허라지。삼년, 징역바게 더 지겟니?」 하고 담배를 펵펵 빨앗다.

인현은 즉석에서 돈 이천원을 내어서 정규를 줄까 하고 지갑에 손을 대엇다가,

「그럼 아버지 여긔 게시요。제가 가서 김서방을 물러가지고 오겟습니다」 하고 인현은 일어나 나갓다.

김서방은 마츰 집에서 낫잠을 자고잇섯다。요새 확김에, 또는 돈이 생기리라는 허욕에 밧듯도록 술먹는 버릇이 생긴 김서방은 아모도 업는 집에서 혼자 낫잠을 자고 잇섯다.

인현은 김서방과 마조 안는 맛헤 단도직입적으로,

「여보 김서방。그래 아버지를 어떠케 할생각이오?」 하고 물엇다。

김서방은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고소허지。금봉이하구 혼인을 시켜준다면야 말할것이지마는」 하고아직도 술긔운이 남아서 썽낸다.

「금봉이하구 혼인한다면은 안될말이구。」

「웨 안될말이야? 흥。혼인날달아난신부야。내가 그때에도 여러가지 사정을보구 참엇스니깐 두루뭉수리해지。지금이라도 내가 혼인약속 리행청구소송을 할수가잇단말야」 하고대서소에서 어더들은 지식을쏘다놋는다。

「그것은 안될말이」 하고 인현은,

「첫재에는 금봉이가 동경간뒤에 김서방은 어멈하구 혼인을하지안엇소? 김서방이만 녀자하구 혼인을 하엿스니깐 금봉이하구의혼인계약은 김서방편에서벌서해제 한것이란말야。그러니깐 그런억설은말구。또내아버지가잘못하신것은 나는몰으우? 그러타구김서방이 우리아버지를 징역을보내기로무슨 시언할것이잇소? 안 그러우? 하니깐 말요。김서방도대단히 분하겟지。분할줄내가 몰우우? 그러치만 그 분한것 다 참구 말요。내가 김서방을 돈 얼마를 들일테니 김서방 아주 입을 다물어주시오。내가 여태껏 김서방부구 한번두 이일에 대해서 가타 부타 말한 일이 업서。그러치안우? 내가 최초요 최후로 하는 말이니 내 말대로 해주오」 하고 김서방을 위협하는드시 노려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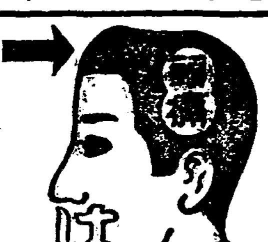
「안 돼요」 하고 김서방은고개를 흔들엇다。

「안 돼?」 하고 인현은 입을 꽉 다물엇다가,

「그래 안 되면 어떠컬테요?」 하고 대들엇다。

「금봉이를 날 주든지 그러치 아니하면 고소하지」 하고 김서방도 쉬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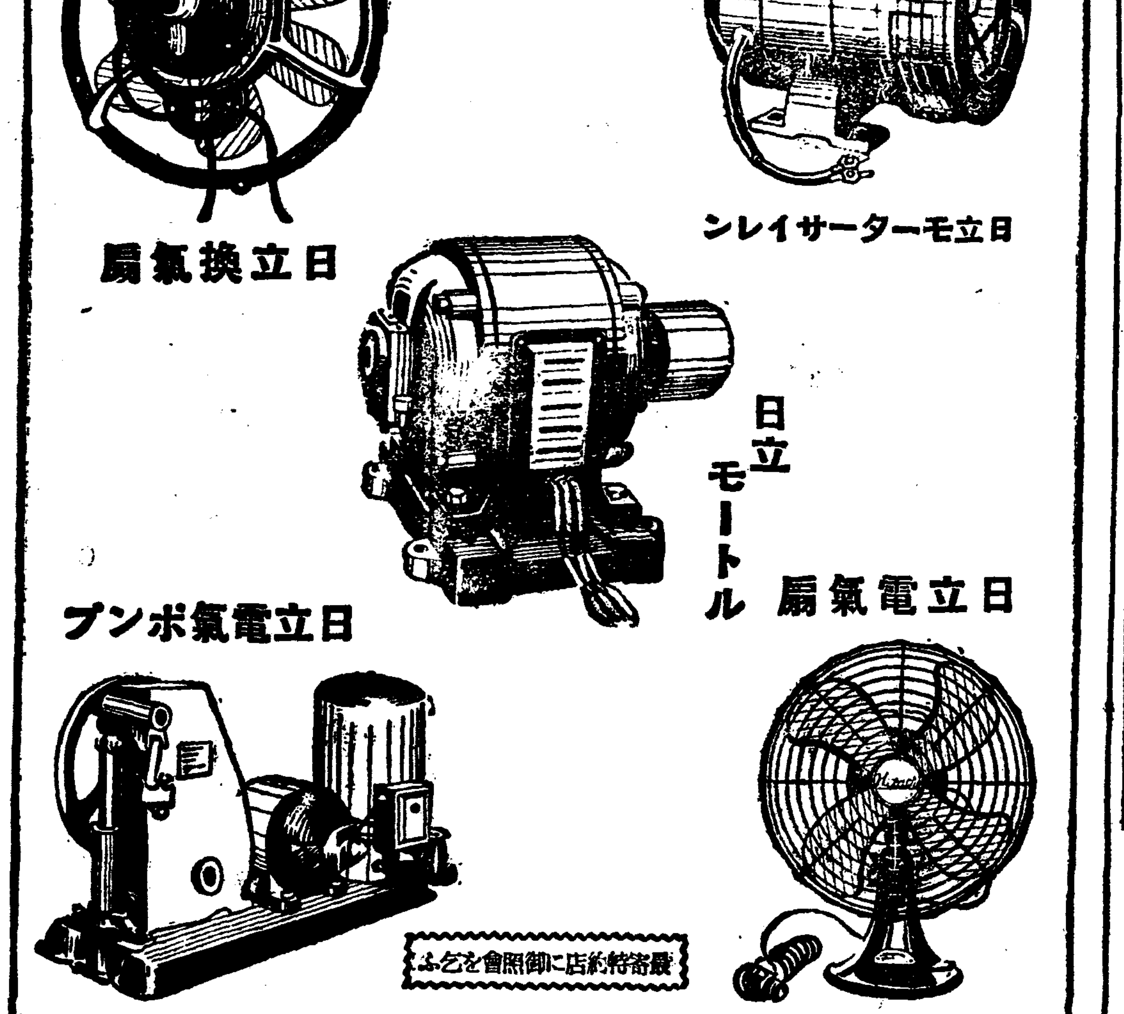
「옹 김서방마음대로 해 봐, 내 아버지 감옥소에 가시기전에 어떤놈은 목아지가 달아나고 말걸。이 죽일놈 가트니。네 가슴에는 칼 들어갈도 모른단말이냐。이 놈 네 핵다귀가 뒤 방으루 굴은 줄 아느냐」 하고 인현은 호령하엿다。

田効散 → 齒痛과 頭痛의 먹으면낫어

神經痛鎭定、神經衰弱强壯、神經痛 루마지스等 奏效偉秀 泣顔도 笑顔으로變함
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本舖 東京 大阪 森田製藥所
最寄店に有ります

金儲 アイスドロップ機
最新式簡便 燒機 穀物膨脹機 カタグロ星 新案特許 利益多大 メルス製綿菓子機 延機 氷菓子機
大阪此花區野田驛前 石樫製作所 電土佐堀八〇二六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淋疾 唯一한權威的銀內服劑 パロール 바로-루
本劑는 世界的發明인特許(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을應用하야 堀場研究室의 監督下에製造한것으로서 純良白檀油에銀을코로이드狀에分散식힌銀オルガノゾル治淋劑임으로 이것이內服의結果銀微粒子는身體組織及血管內에完全히吸收되야、곳빨이尿中에析出되고 病巢患部에對하야强力的作用을할뿐안이라、深達性淋菌撲滅에用는터욱터욱高揚되고消炎力도短時日에能히的으로治癒作用을促進함。그러고胃腸障害의副作用이업고、血管內에서 神經性疾患의治癒作用에奏効하면서더욱危險과不便이업슴은在來治淋劑의絶對追從을不許하는바이다。特히慢性淋疾에關한京大病院片山附學博士의推奬實驗報告書를보시라文獻上呈
急慢性淋疾、膀胱가타루、急慢性尿道炎、子宮內膜炎、女子淋疾、攝護腺炎、睾丸炎、卵巢炎細菌尿
☆全國有名藥店에잇습니다 로-루라指示하십시요。注文은振替又는代引으로願하면密送함 前金注文은送料不要郵劵代用도可함
定價 一二〇瓦入 一圓八十錢 三六〇瓦入 三圓五十錢 一〇八〇瓦入 十圓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かぢ町大通(神田驛側) 振替東京二五〇番 代表電話神田二〇〇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一丁目 振替大阪七六〇番・電話本局二六〇番
文獻送呈

頭痛이잘낫는名藥
森田資先生御推奬 有名한醫學博士
●머리가갈려지는거가티몹시아플때!!
●바늘로쑤시는거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리터분할때나 술을過飲하고餘毒으로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언제머리를 아랏는가? 하는즛강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바로는때가게시거든잇지말시고노-신을잡수어보십시오
明快해집니다 어려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십시요 더욱 家庭常備藥으로 언제나떠러지지못할藥이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 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신을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局이나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노파(?)이만히나와잇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가쉽습니다 사실때商標帽子印잇는 노-신에 잘注意하십시요
노-신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最寄特約店に御照會を乞ふ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内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大連市紀伊町八五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名古屋市中區新柳町六丁目三ノ一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 札幌市南二條西三丁目一ノ一

腫氣 青山膏 에-옴 히-벡-꼬

日夜惡戰苦鬪하는 胃腸에 充分한休養과力强한 活動을適當히주는 仁丹
再昨年부터全國에三千七百萬의 仁丹容器가普及 德用包로間斷업시活用되는 仁丹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小册子『四季朝鮮料理法』(送料郵券七錢切手)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特輯

第十四回美展의 全幅에連한印象

安碩柱

第 十四回 美展에 잇서서 먼저 個人個人의 作品보담도 全體로보아 過去보담進展된 狀態를보혓다 于先 審査에잇서서 審査員側의말과 別로 다른바업시 嚴選되엿갯고 一般作品에잇서서보담 特選作品에잇서서 公正을잃지안흔것이 깃브다할수잇다 그럿타고 過去에잇서서의 審査制度를 말하는것도 아니요 過去에잇서서는 作品들의水準이 正確하다 할수가업는 까닭에 審査에잇서서도 苛酷할수가업는때가 잇섯든듯하지만 이번十四回展에잇서서美展이 이제로부터正確한水準을어든듯하니 作品의 評定이問題되고 여기서嚴正한態度를 차즈라하게까지되엿이다

元來 어느곳 展覽會서보든지 그때 그審査員의作風이라든가그의嗜好를엿보아

作 品을 製作하야 出品하는 사람이 만타는 것은 避치못할 傑作가티 되엿스나 美展에 잇서서 이러한 아류남지못한傾向이 또ㄴ그런分子가消滅되여가는것이 이美展의發展을 意味하는바라하겟다 그리고 朝鮮人側의作品中에서 佳作이만허슴이 깃븐일이요 여기서 한거름더나아가 才氣潑剌한 몃몃作家를 對하게됨에 實로欣喜를禁할수가업다

그리고 日本內地人의 朝鮮의風景 或은 朝鮮人의風習이라든가 生活色에서 題材를가저온作品中에 朝鮮에對한 見解가 嚴肅하다든가 正當한바가 잇는대에 敬意를表하고십다

먼저 松田正雄氏의『躍日』(無鑑特選)은 이美展에 누구누구의 朝鮮人作品보담도 朝鮮의面貌의 그어느部分이나마 깨끗하게 아름답게 崇高하게

表 現한대對하야 늣긴바가 [illegible] 堅山坦氏의『風景』(特選)에잇서서 鄕村의一部를보혀주엇슴에도 道德上으로보아 조곰도 不快한感을 늣기게하지안는것을보면 여기서도우에말한 朝鮮에對한 見解다든가 認識이다른 作家입을 볼수가잇다는말이다

一幅의 畵面에서 그러한問題를차저낼必要가업다고 하겟지만 醜만을 醜로써만 表現한作品에 잇서서 누구나 共通으로 不快를늣기는것과가티 오히려 朝鮮人作家某氏 가튼作品에서 觀者에게서 그所謂 憤怒를사게되는것이다

여기서 作者의 人格이問題가된다 審査員의 嗜好가이런가한 그릇된 推測이잇섯기때문에 朝鮮의物色을 보히기위하야 그러한題材로그렷는지 모르나너무도 野卑하고賤劣한作品

內 容이 누구에게나 反感을 살지도모른다

藝術이라는것繪畵藝術이라는것이 이런것이라면『밀레-』의『晩鐘』이나『씨뿌리는사람』가튼것을 風俗畵로알고『르노알』의裸體畵를 春畵로만 삼지안으 안노는理由도 無理하게붓칠는지도모른다

作家의良心、或은作家生活의內面、其他를 그作品에서 누구나 窺視할수잇다 이에藝術作品에서 그作家의全幅이 露現되는것이다

◇

다음으로는 美展에잇서서 큰收穫이라는것은 新出作家들의特選됨과 作風緊縮함이다 于先靑田字泉氏의作風이 東洋畵部에서 一、二로 헤일수업는것이요 西洋畵部에서 山田新一氏의作風에 大同少異한作品이 또한 二、三로헤일수업는것이다

[illegible]自由畵에서도 가[illegible]그린그림에서

兒 童들의생각과 筆致의다룸을 보게되든데 [illegible] 展覽會에出品한 作品에서 個性을 내여버린作品을볼수잇다는것이오우울이다 비록地方色을띄우展覽會에서라도 이런作風은그리깃버하지못할傾向이다

여기서 女流作家 鄭燦英氏의 作品에얼마나 快作인가를 생각하게되다 그조그만 一幅彩畵에서朝鮮의情調、그로그만畵面에서 朝鮮의雰圍氣를볼수가잇고 함미잇한중에서 朝鮮의봄을볼수가잇다、限定업는 詩句를나 흉수잇는 이畵面에서 얼마나鄭氏의特異한表現을볼수잇는가 눈물이나다가도 우슴이나오고 우슴이나오다가도 우슴이나오게하는이作品이 이번美展의 적지안은收穫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鄭氏의 藝術家로서의 착한마음、사랑、노래를보고 드를수가잇다

東洋畵部에잇서서이

鄭 燦英氏와 堅山坦氏와松田正雄氏의 作品이 印象이깁다

◇

西洋畵部에 잇서서 鄭玄雄氏 李仁星氏、金鍾泰氏、金龍祚氏、林應九氏 等 朝鮮人側이 優秀하엿슴이깃분일이다

李仁星氏의 作品에서 氏의物象에對한 探究가기픈것과 觀照가깁흔것을볼수잇스니將來에 期待가큰바를누구나 늣길것이요鄭玄雄氏의 作品에서 그의沈着性과 深大한觀察力을볼수잇는 反面에 憂鬱性을 가지고잇는것도 朝鮮畵家로서업슬수업는일이겟다

金鍾泰氏는『靑裝』과『모델』두作品에서 그의敏智를볼수잇는代身에 明朗한것은어덧스나 深刻한맛을 일흘가 조심성스러웁다 그러나 技術로보아 이美展洋畵部에 잇서서 一流에하나임을否認할수가업다

金 龍祚氏의『畵本을보는少女』『녀름의洞窟』『雨後』等 素朴한그림이요 作家의 생각이 튼튼함을볼수가잇다

이번에 鮮于澹氏의作品의 進展이업슴이 哀惜한일이요 過去에 볼수잇든優秀한作家들의 作品이 볼수업슴이 섭섭하다 그리고 어느部에나 優秀하엿든作家의作品에 戲作이잇슴도섭섭한일이다

아프로 美展에서 勇斷한推薦作家들의 作品을 注目할만하며 明年부터의 美展亦是 注目할價値가잇다고생각한다

이 拙文은 이번美展의總印象을 縮少함에지나지안코 다시금 나 機會를보고자하고이만끗친다 (妄言多謝)

美展特選畫報

사진설명

(右로부터)『靑裝』金鍾泰氏作 『椅子의像』林應九氏作 『慶州의谷間에서』李仁星氏作 『螺鈿茶棚』姜璡甲氏作

(左로부터)『座像』鄭之雄氏作 『少女』鄭燦英氏作 『畵本을보는少女』金龍祚氏作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在東京音樂家들의全貌 (5)

最高音域가진 테너-歌手 崔昌殷氏

崔昌殷氏

★……테너- 최창은(崔昌殷)씨는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를졸업하고 동경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에 재학중이데 전일에 일미교환 음악(日米交換音樂)방송에일본대표로 가극(歌劇)을방송한 관중자(關種子)녀사에게개인교수를밧고 지난해에 동경에 이루는 안긔영(安基永)씨의 문하에드러가 연구중이다 씨는지금은 동경조선음악가협회의 기획부장(企劃部長)을지나 서무부장(庶務部長)으로잇다

★……최씨는 지금도 가극을연구하고잇거니와 조선에도 가극상연이되도록 로력하겟다고하며 조선에도 음악학교다운것을설립되도록장래에힘써보겟다고한다 그리고 음악예술에대하야 홀대가자심한조선에서 이에 눈뜨도록활동하고자한다고한다 최씨는 남성으로서 가장곤흔음역(音域)을 가젓스며 시적이며 극적요소를 가지고잇고 그의음악에대한 주밀한해석과 기피기피 파고드는 탐구적긔질을가저 재동경조선음악가들중에 명망이 놉흔터이라한다

★……그리고 속되데에 라현이업는 솔직한 예술적 양심을가진 점은 음악가로서 드믄 특성을가진 [illegible] 위대한 음악가가될수잇다 이십삼세에 아조 새파란시대에 이만흠이나 침착한성격을 가젓다면 아프로 이에게서 긔대할바가마흔을알며 조선악단에 중추인물이될줄안다 아무럿튼 이최씨는 고토방문음악회에서 그의 포부를 보혀줄것이다

美展을보고나서

—나의回顧와漫想—

金復鎭

五月

비개인아츰

美術의벗 安碩柱兄과 억개를가티하야 걸으면서 그림을말하고 彫刻을말하고 그리다가 脫線을하여서 演劇으로 音樂으로 이야기를주고밧으면서 總督府美術展覽會를 求景하러갓섯다

어제밤無人島에서 도라온『로빈손、구루소』의 瞳子에는 모든것이 奇異하고疑訝하고 그리고바갈게보일것이니 나도한『로빈손、구루소』와 거진가튼바잇合으로 눈에띄이는것이 大體로 神奇하엿다 부응화풀어서 水彩畵的으로敍述한다면 近代人의趣味 感情또는常識의 形象化라고할바 美術品을 近十年無人島의 살림사리를하든

人 間이 그리똑똑이 알아질바업는것이나 눈에빗친대로記憶에 남은대로를 親筆에끌니고 編輯時間에 맛추어 두어字적어 보기로한다

第一部(東洋畵)七十四點中 朝鮮사람作品가운데 가장記憶에鮮明이남은것은 鄭燦英氏의『少女』이나 眞一[illegible]하는 사람들에게 審査推薦하는 資格을 許與한다 洋夜市를 夢中傑作으로 나는 探點하고십헛다

鄭燦英氏의 作品은 近代的東洋(畵이런用語를 궃하야쓸바안이나우선써두고 新義解釋은追後로 말하기로한다)의 約束을직히고 畵心을붓잡어 無境히表現하엿다고생각된다

李象範氏의『春』는 十年前옛날의

作品을 對한듯 나로서는 반가웟다마는 옛날부터 作者를 알고 옛날부터作品을 보아온나로서는 그동안새로운 道境이百方으로 한편 寂寞感을 갓게되엿다

心田 貫齋를거쳐 새로운東洋畵에일으기까지에 그中間階梯로 반다시 李象範氏의業績이必然한뜨이나 그러타고하야 年年히作品마다 唯一의境地를 嚴守하는것은 首肯키어려운바잇지안홀가하나니 自己體系를 建設하는것만이作家의일이안이라 旣自成된己體系를부시고 새로운

探究를 하는것이 情熱을가진 健康한作家의할바일이안닐가한다

山이잇고 山에는반다시 구름이끼이고 가는길이 노히고새로가라노흔밧(田畓)이잇고 하늘에는몃마리새가 날너가는風景에임의서로 倦怠를늣겻슬것이다 氏의過去의 業績을알고 力量을밋는나로서는 不遠間氏로하야곰새로운世界로 出發하기를 바란다

李用雨氏『霽雨滿野』를보고 氏와가티 同硯社畵房에서 筆談을가티하던 옛날이回想된다 淸明한色調는

餘韻이 넘치어잇고 話談한 筆觸은 生氣流動하나 迫力不足의늣김이잇다

李英一氏『洋犬셋다』내가常識的으로아는 範圍에서는 決코動物의體形이 이러치안타고 생각된다그러고動物의 表情研究에잇서도 아직의 나로서는 不服하는곳이잇다 畵面構成에도 用意의缺除로하야 압헤잇는小犬의 量感이업는것이 눈에띠인다

崔禹錫氏 (東明)

金基昶氏 (鹽婦)

等은人物畵로서 佳作들이겟고

鄭用姫氏『新綠』『歸樵』等은 李象範氏의畵風에 接近한것이 안인가하나

創意를 지안흔것 作家는 化石化할憂慮가만흔것이다

白潤文氏『憤怒』는速力을 表現한것인지 모르겟으나 人體將棋片片이 空中에떠잇다고보앗다

李景九氏 硏育所見

秦世斌氏『外出』等等은 門外漢인 우리로서는 理解하기 가장어려웟으나 東洋畵라고하기보다는 포스타라고하야 特別陳列하는便이 올치안홀가한다

第三部 彫塑及工藝品中 내눈에 고흔

刺戟을 준것은 거의하나도 업섯다 大體로 鄕土色 朝鮮情調라하는것은 그러케 表現될바안니라고생각한다 엇재서 그러냐하면 朝鮮特有의 情趣는 하로잇틀배워서 되는것이안니며손쉽게模倣되여지는것도안니다 朝鮮의環境에 그대로줄것고 그속에서生長하지안코서는 되지안흘것이다 그러타고해서 朝鮮사람만이 朝鮮의眞髓를 붓잡는다는것도안니다

이번出品한것中에 果然朝鮮의一面을 表現한것이잇는가 工藝品中에서는 나는이것을 發見하지못한것을섭섭히안다朝鮮이라는

槪念에 붓잡히어 여긔에 맛추어올냐고 古墳壁畵의 一部를 轉載하기도하고 古器物의形態를붓잡아보아도 임의여긔에는 朝鮮과作別한形骸만남는것이다朝鮮사람들의 作品는海外에하여버리고 그냥어지는 그냥그대로이니 이곳에 무엇이잇슬가 이곳에무어이表現되엇슬가 彫刻에는

文錫五氏『首』한點만이 彫刻으로서 그要素를 具備하엿다고보앗다 그러나 그마한것으로는그 力量의全面을 理解하기어렵고來年을 企待하야마지안는다

洪淳慶氏『受難』은 失體에갓가운點이나初學者의

習作갓 햇다 文學的인命題로하야 鑑賞에 도로혀混亂을 주지나안홀가한다

金斗一氏『胸像習作』

李炳三氏『拔摘』

이두분의 作品을 나로서는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彫刻은決코 이런理致가업슬터이라고 밋을뿐이다

第二部 西洋畵는 斷然朝鮮사람의 作品이 빗난다 그中에서도 李仁星氏의 作品은 無條件하고 禮讚한다 벌서風格이 具備되여잇고 活氣가 橫溢하야가장 愉快하엿다

尹相烈氏『사보텐』『鐵道近傍』은

大膽한 筆觸에 오래감추엇던 生命이끌어나온것갓다 바라건대 色彩에抑揚을주엇스면한다

金龍祚氏『畵本을보는少女』等等諸作品에 亦是特選이된것이가장반가웟다 着實히한거름한거름 秋象을 解釋하고 그것을藝術化한作家의 敬虔한態度와 마음에 반가웟다

金鍾泰氏『靑裝』『모델』은 才氣가잇는氏를 對面한것갓다 여긔서 처음으로氏의 洗練된色彩를通하야二十世紀의 文明을본듯하나 裸體畵는 暫間別問題로하고『靑裝』에잇서서도 人體模寫에 거북한點이잇지안혼가한다 例를든다면『다리』갓흔곳에 說明이

曖昧한 것이다『모델』은 氏의作品으로 成功한것이안닐것이다『루노알』이 十八世紀의佛蘭西女性을 가장잘表現하엿나하니 氏는 近代의女性美를 또한 훌륭하게 再現하여주기를 바란다 妄言多謝

漢詩

碧梧山人考選

桃花

選外三 平壤 尹縉赫

桃花爛漫繞春城
境似仙源不世情
灼灼華精誇上巳
夭夭香頰笑淸明
千枝露重臙脂浥
萬樹霞輕錦繡榮
園裏政宜開夜宴
留光尤美月三更

新刊紹介

▲朝鮮鐵道協會會誌 五月號 京城府古市町十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和文)

▲婦選 五月號 東京市麴町區麴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京七〇三八三番 定價十錢(和文)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第二七號 奉天小西門外奉天居留民會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發行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四十錢(和文)

▲古壔 第二號 東京市豊島區池袋二ノ九三四 古壔會發行 振替東京七五二二九番 定價二十錢(和文)

痔疾의治療法?

치질

小松痔退膏 (소송치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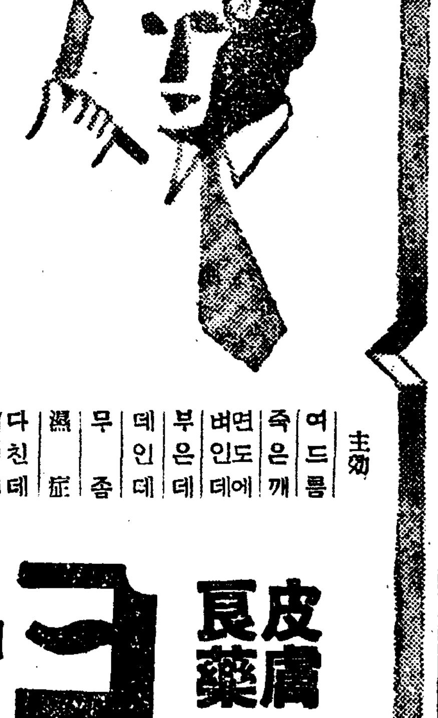
內痔核・外痔核
裂痔・痔出血
肛門糜爛・痒痔
脫肛・痔瘻等에

痔疾治療는그適切한治療와同時에禁酒禁煙을斷行하지안으면안된다。小松痔退膏는이것을患部에添付하면곳痛腫部를收斂식히며裂創面의炎症을除去하고더구나 그鎭痛作用은가장優秀한것이다。더욱痔退膏의使用과共히併用藥小松痔快丸을服用하야서排便을整齊하야小松痔退座藥을患部에挿入하야둔것은治療를빨이하는가장合理的治療法으로서好評이다。

定價・二十錢・五十錢
一圓・二圓・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總代理店 東京 大阪 玉置合名會社

面刀한後에.化粧下에



一家에一瓶은꼭常備하여두십시요 紳士도 淑女도 老人도 애들도 貴重한살을守護하심에는언제나빼지못할家庭常備藥이다

皮膚組織의深部에浸透하야서殺菌을잘하고、살결은潤이나며、皮膚病과부름을곳처줌으로化粧下、面刀後에쓰심이理想的이다。

主効
여드름
죽은깨
면도에 벼인데
부은데
데인데
무좀
濕疹
다친데

皮膚良藥 ヨーデ水 (요-지)

定價二十錢부터・全國藥店에잇슴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 大阪

宇津救命丸 (우진구명환)

自古로有名한 育兒藥이다!

家庭에서는언제나宇津救命丸을常備하야주십시요。子女들의氣分이납부다든가、심술을할時는어데가앞흔것입으로宇津救命丸을주십시요。救命丸은옛날부터有名한育兒藥으로애들의胃腸을整齊하며、疳、못채고、夜泣、경련、消化不良、便秘等에잘듯는다。

定價廿錢부터・拾圓까지잇
合全國有名藥店・百貨店藥
品部에잇슴。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 大阪